

금산분리 현황과 미래

카카오페이
전략총괄 신원근

금산분리의 필요성



금산분리의 변화의 필요성

- 금융업 / 비금융업의 이분법적 구분의 어려움
- 금융을 포함한 전 산업의 IT 중요성 향상
- 이종산업간 융합 가속화

금융 당국의 변화 시도

- 인터넷전문은행 산업자본 허용
-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투자 가이드라인
- 일반지주회사 VC 설립 허용

금산분리 규제 현황

금융회사	금융지주회사	일반지주회사	일반회사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비금융회사를 20% 초과 소유 불가. 5%만 넘어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소유 불가 자회사는 금융/비금융 불문하고 '고유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종'만 금융의 승인 하에 허용 <p>※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으로 '핀테크기업'은 업무관련성 인정 ('19. 10. 18.부터 2년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융업 및 보험업을 하는 회사는 비금융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금산 분리 규제 동일 적용 단, 금융회사 투자 가능하나, 비금융회사는 5% 미만으로 투자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융업 투자 불가 VC에 한해 올 12월부터 가능 (단 100% 자회사 형태여야 하고, 일반 VC 대비 부채비율 제한 있음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 투자 제약 없음 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34%까지 소유 가능 일반회사 소유 금융회사는 계열회사 주식을 5% 이상 소유 불가

금산분리 적용 방식의 변화 방향성

- 산업분류표준의 구분에 따른 투자 업종규제
➔ 자금운용 제한 및 내부통제
- IT산업에의 투자 제한 축소
- ※ 전자금융업 예외 적용

감독체계 개편 필요성

산업융합에 따른 중복 규제 방지와
융합 산업 육성을 위한 **컨트롤타워** 고민 필요

- IT 등 이종산업간 융합으로 산업간 경계 모호
-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각 정부부처 목적에 따른 이중(혹은 그림자) 규제 발생 가능

→ 산업의 혁신을 지연시키거나 저해할 수 있음

End of Document